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9년 12월 22일(화)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주말전담/여성-주중전담” 의 가사분담형태,
기혼여성의 집안일 스트레스 키워**

- **여성가족패널자료 활용한 연구결과 발표**
- **일·가족양립에서 경력단절까지 우리사회 여성정책 화두 공유**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주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배포 날짜 : 2009년 12월 22일(화)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info@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오는 12월 23일(수)에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여성가족패널(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움

- 일시 : 2009년 12월 23일(수) 13:00 - 18:00
 - 장소 :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오는 12월 23(수)에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여성가족패널(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1, 2차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에 앞서 여성노동, 가족 분야에 정통한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여성가족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 본 심포지움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출산계획 결정요인과 그 사회적 함의”, “Identifying Factors determining Reservation Wages of Working and Non-working Female in Korea”, “생애단계별 여성의 시간배분과 노동공급”, “여성 중고령자의 노동이동과 직업훈련”, “자녀교육과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총 6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 김태현 원장은 “학술대회에 앞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움은 여성가족패널 자료의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여성가족패널조사

- ☐ 여성가족패널 조사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적 패널조사로서, 여성의 삶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여성정책을 더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설계, 평가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이다.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2007년도에 전국 9,000가구 내 만19세~64세 여성 10,000명을 표본으로 하는 ‘여성가족패널(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조사를 시작하여 2008년 1차 조사를, 2009년에는 2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 ☐ ‘여성가족패널’ 자료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상태,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의 조화, 가족과 관련한 가치관, 가족관계와 구조, 가족형성과 해체 등에 있어서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 ‘여성가족패널’ 자료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 보육,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1. 발표요약문

별첨 2. 행사일정

별첨 1. 발표요약문

직장,가사,양육,...
슈퍼우먼을 바라는 사회: 남편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아내의 일-가정 양립 어려워.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유계숙 교수는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표 논문을 통해 여성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이 짧고 남편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패널조사 1,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기혼여성 중 부부 이외의 가사조력자가 없는 253명을 분석한 결과이다.
- 필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중 가사노동을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는 가운데 주말 가사노동을 여성이 덜 하게 되면 그만큼 주중 가사노동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하는데, 그것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 또한 맞벌이 부부에서 남편은 주중에는 거의 가사노동을 하지 못하다가 주말에 주중의 몇배에 달하는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남성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일이 가정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 본 연구를 통해 유계숙 교수는 가사조력자가 없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는 부부간 보다 더 평등하고 합의된 가사노동 분담 노력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기업 측에서 과중한 업무시간의 경감과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전히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 기존자녀가 딸일 경우 추가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이명진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1, 2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여성의 출산계획 결정요인과 그 사회적 함의’ 연구에서 기존 자녀 중 딸만 있는 경우, 출산계획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 기혼 여성의 향후 출산계획 유무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기존 자녀 중 남아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가 여아들만 있는 경우에 비해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 남녀간 성별 분업에 대한 지지 등 보수적인 가족 가치관이 강할수록 추가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것은 여전히 자녀의 추가출산계획에 남아선호사상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출산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이를 토대로 이명진 교수는 가족이라는 제도에 대해 여성이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갖느냐라는 문화적 요인이 출산계획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응하는 각종 사회정책을 검토할 때 이러한 문화적 측면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이 기혼여성을 일하지 못하게 하나?

- 한림대 경제학과 조동훈 교수와 성균관대 경제학과 조준모 교수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육아에 대한 부담임을 밝혔다.
- 필자들은 여성가족패널조사 개인용 설문지의 “자신의 가사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항목을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유보임금(취업했을 경우 받기를 원하는 최소 임금수준)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대리변수라고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의 유보임금 결정요인과 그것이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분석 결과 기혼여성 중 고학력자, 미취업자, 30대 이상 청장년층,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취업한 배우자를 둔 자 등의 유보임금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기혼여성과 전업주부간 유보임금의 격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육과 6세이하 자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기혼 여성이 취업할 확률을 가장 크게 떨어트리는 것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것이었고, 기혼 여성의 취업 확률을 가장 크게 높여주는 것은 친정 부호 혹은 시부모와 동거하는 것이었다.

-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필자들은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이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은 가장 큰 장애 요인임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노동공급 패턴에 남녀 격차 여전해: 여성의 일자리 근로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여전히 가사노동의 양.

- 한국노동연구원의 황수경 연구위원은 여성가족패널 2차도 자료를 활용하여 생애단계별 여성의 시간배분 실태 및 노동공급 특성을 분석하고, 개인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러한 요인들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 생애단계별로 여성 본인과 배우자가 가사노동과 일자리 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일자리 노동 시간은 육아 등 가사노동 수요변화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남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성별에 따라 개인의 임금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자신의 임금이 상승할 때에 노동투입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우 본인소득 외의 가구소득이 증가할 때 임금노동 시간이 축소되는 경향이 존재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가가 본인의 임금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근로소득 증가가 소득효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부인의 가사노동을 대체할 추가적인 수입을 필요로 하는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황수경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정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등 가사노동의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파트타임 근로에의 접근성을 높여주거나 근로시간 계정제와 같이 여성이 근로시간에서의 재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업훈련 받은 중고령 여성 급여 상승 효과있어 : 직업훈련이 중고령 여성의 임금상승에 긍정적 영향

- 공주대학교 경제학과 김우영 교수는 중고령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질이 열악하며 이는 하향적인 노동이동에 기인한다는 인식하에, 여성가족패널 1차와 2차 조사 응답자 중 45세 이상 여성 중고령자 3,677명의 노동이동과 이 과정에서 직업훈련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 45세 이상 중고령 여성에 있어 재직자의 직장 유지나 실직자의 취업확률을 높이는 데는 직업훈련이 대체적으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령 여성의 임금 상승에는 직업훈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령 여성이 갖고 있는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직업훈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직장이동시 직업훈련을 받은 중고령 여성의 임금상승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표본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김우영 교수는 직업훈련이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는 사실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 중고령 여성이 받고 있는 직업훈련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여성의 경력단절에서도 양극화가.. 저학력 여성과 전문직 여성 사이에서 자녀사교육비로 인한 경력단절 확률 높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이선행 연구팀은 여성가족패널조사 1, 2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자녀교육과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연구에서 중졸이하 저학력 기혼여성이 자녀의 사교육비가 높아질수록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진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저임금, 저소득 근로자에게서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가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의 경우 비임금근로 형태를 가질 때 경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고학력, 고임금 직종인 관리자 및 전문가의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필자들은 이 현상을 기업의 관리자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 차별적인 관행에 직면하기 쉬우므로, 더 이상의 승진가능성이 적은 관리자급 기혼여성들은 향후 예상되는 자신의 근로소득과 자녀의 교육투자로 인한 수익률을 비교하여 노동시장 퇴장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별첨 2. 행사일정

<행사일정>

시간	내용	
13:00~13:20	등 록	
13:20~14:00	개회식	<p>사회 : 장혜경 기획조정본부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p> <p>개회사 : 김태현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p> <p>축사 : 황준기 차관 (여성부)</p> <p>여성가족패널 소개 : 이택면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p>
Session 1		사회 : 강석훈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14:00~15:10	제1주제	<p>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p> <p>발표자 : 유계숙 교수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p> <p>토론자 : 김미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p>
	제2주제	<p>여성의 출산계획 결정요인과 그 사회적 함의</p> <p>발표자 : 이명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p> <p>토론자 : 류기철 교수 (충북대학교 경제학과)</p>
15:10~15:30	휴 식	
Session 2		사회 : 김태홍 일·가족연구실 실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30~18:00	제3주제	<p>Identifying Factors determining Reservation Wages of Working and Non-working Female in Korea</p> <p>발표자 : 조동훈 교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p> <p>조준모 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p> <p>토론자 : 강창희 교수 (중앙대학교 경제학과)</p>
	제4주제	<p>생애단계별 여성의 시간배분과 노동공급</p> <p>발표자 : 황수경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p> <p>토론자 : 박수미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p>
	제5주제	<p>여성 중고령자의 노동이동과 직업훈련</p> <p>발표자 : 김우영 교수 (공주대학교 경제학과)</p> <p>토론자 : 오은진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p>
	제6주제	<p>자녀교육과 기혼여성의 경력단절</p> <p>발표자 : 김영옥 성주류화연구실장, 이선행 전문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p> <p>토론자 : 박진희 부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p>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